

동운동포럼 1강

노동운동의 새와 나아갈까?

단병호 | 前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소식지

3호

2013년 11월

목표

2013 인천노동운동포럼 3강

"노동운동 세대토크"



시민의 생각 < 재벌 총수의 생각

- 재벌 - 소수의 지분
- 총수들의 반

사회자

김희현

이영호

이영호

이영호

2013 인천노동운동포럼

인천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2013인천노동운동포럼 돌아보기

사회진보연대가 만난 사람 :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 / 삼성서비스전자지회 수석부지회장

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 경과와 현황

크림이아가: 끈달린 구두, 반 고흐

공단에서 미숙련노동자로 살아가기

목차

권두시	물꼬 이해영 전회련학비 인천지부 부지부장	2
발간사	또 다른 진태일, 故 최종범 열사를 추모하며	4
이슈와 입장	<인천>인천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2013인천노동운동포럼 3강 발제문[요약]	6
	<전국> 기초노령연금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짜퉁’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13
	<전국> 진보는 무엇을 성찰해야 하나? -소위 ‘내란음모’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20
	[4nd]박춘배	25
사회진보연대가 만난 사람	-전교조인천지부 조직국장 [5rd]라두식	32
통계로 보는 인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37
회원칼럼	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 경과와 현황	37
	이인화의 그림이야기 -근 달린 구두, 반 고흐, 1886	45
현장일기	공단에서 미숙련노동자로 살아가기 -공단노동자 박미경	48
	2013인천노동운동포럼 돌아보기	52
사회진보연대 활동소개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 이주노동자 선전 전/ 전교조 교사대회/ 시국회의촛불 카드섹션/ 공항지역지부 파업 풍경	59
내가 본 사회진보연대	함께 소풍 갑시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사무국장 전송철	61

물 꼬

이해영

날마다 뜨는 해,
흘러가는 강물은 시비가 없듯이
추억과 촛불을 잇는
흘러넘쳐서도, 부족해서도 아니되는
징검다리여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 생각에만 갇혀사는 깨어나지
못하는 애벌레가 되지 않도록,
공기와 물이 생존을 위해 필요하듯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끈적 끈적한 그 무엇처럼
너는
나와 너, 우리를 잇는
삶의 동아줄이어야 한다.

성냄도, 미움도 벗어놓고
물과 바람과 구름같이, 훨훨날아
힘든 세상 물끄러미
생각되어지고 그리워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듯이
너의 마음처럼
희망의 불씨 피우거라.

세상의 많은 짐과
풍요가 주는 삶의 고단함을
일상에 묻어버리고 사는
수많은 이들에게도
너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제는 그들의 그림자가 되어야한다.

바람과 구름, 가을이 우리를 차별없이
환한 미소로 반긴다.

또 다른 전태일, 故 최종범 열사를 추모하며

한재영 | 집행위원장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해가신 전태일 열사의 기일이 돌아오는 11월입니다. 43년 전 노동자의 인간선언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31일 자본의 탄압에 항거하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조합원이 또 다른 전태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물꼬 3호는 11월 다시 한 번 전면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해영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인천지부 부지부장님의 <권두시_물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말, 10월초 3주 간 성황리에 진행된 2013인천노동운동포럼 소식을 전합니다. <이슈와 입장>에 인천지역 민주노조운동의 평가와 제안을 담은 3장 ‘세대토크’ 주발제문 ‘인천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요약본을 실었습니다. <활동보고> ‘2013인천노동운동포럼 돌아보기’에서는 1,2,3장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슈와 입장> 전국사안 코너는 소위 ‘내란음모사태’의 진보진영의 대응 태도, 민족해방노선에 대한 비판과 공약후퇴 뿐 아니라 기존 법안보다 보장성이 후퇴하고, 국민

연금과의 연계로 공적연금 체계를 흔들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개악안’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사회진보연대가 만난 사람〉에서는 요즘 가장 가열찬 투쟁을 진행 중인 전교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조합원 배제 9인’ 중 한 명으로 14년 만에 법외노조 조합원이 된 해직교사 10년차 박춘배 전교조인천지부 조직국장님, 삼성의 ‘무노조’ 아성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계신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 부지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에서는 ‘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 경과와 현황’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소위 ‘공단’의 약사와 현황을 살펴봅니다. 〈회원칼럼〉에서는 새롭게 ‘이인화의 그림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설명과 함께 반 고흐의 ‘끈 달린 구두’를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현장일기〉, 지난 두 달 간의 활동을 알리는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활동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상근자들에 대한 애정과 제안을 담은 전송철 금속노조인천지부 사무국장님의 〈내가 본 사회진보연대〉까지. 알찬 내용으로 채워진 물꼬 3호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인천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2013인천노동운동포럼 3강 발제문¹⁾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1. 노동운동의 위기, 진단과 대안은?

민주노총의 출범 이후,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노동운동의 조직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산별노조 전환 ▲진보정당 건설 운동 ▲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이 핵심 전략으로 수립되고 실천되어왔다. 2013년 현재 산별노조, 진보정당 모두를 결산해 볼 때, '동반붕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별노조는 조직형식적 전환에 비해 기업별 교섭관행과 소수 대기업 사업장 중심의 운영과 사업으로 '산별교섭-산별투쟁'의 목표달성에 부족함이 많다. 진보정당 운동은 안타깝게도 분열의 분열을 거듭해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 분열과 갈등으로 연결되었다. 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은 IMF 구제금융 이후 급격한 비정규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1,2기 활동은 조직활동가 배치, 예산지원 방식을 뛰어넘

1)본 글은 10월 8일 진행된 2013인천노동운동포럼 3강 세대토크 주발제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원문은 www.pssp.org/ic 자료실 1884번을 참고.

지 못하였다. 민주노총 상층과 기층을 아우르며 핵심 조직과제로 들어오고, 전체 조직의 '체질개선'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다.

위의 민주노총 핵심전략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지속되기는 어렵다. 첫째, 산별노조 건설·강화와 정치세력화라는 이른바 '양날개론' 전략을 뒷받침해 온 노동운동의 물질적 토대 침식이다. 민주노총의 주력인 87년 호황을 기반으로 형성된 제조업부문, 1990년대 급진화된 공공부문의 주체 재생산은 이미 어려움을 겪은지 오래다. 둘째,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라는 정세적 조건이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일국적 정책대안 중심의 진보정당 수권전략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

민주노총의 세 가지 전략적 과제가 부침을 겪는 사이 노동운동 내에 등장한 새롭고 의미 있는 시도, 성과를 세심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 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투쟁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조직화의 경험이 축적된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 화물연대, 플랜트노조, 일반노조, 금속노조 지역지회, 공공노조 지역지부, 학교비정규직 노조 등 기업단위를 넘어선 초기업적 조직화 성공 사례이다. 위 단위들은 조직 전체가 확고한 '조직화 노선'을 채택하고,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요구를 투쟁으로 쟁취하면서 조직화와 동시에 해당 직종, 부문 대표성을 획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둘째, 노동조합이 광범위한 정치·사회적 투쟁에 나서는 '운동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써 '사회운동노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운동노조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과제들에서 노조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여성, 생태, 반전평화, 공공서비스 등),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적극적인 조직화, 지역단위 운동의 강화,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실천, 나아가 새로운 이념의 형성 등을 과제로 제

기한다. 지난 10년간의 이런 의미있는 경험이 보여주는 성과와 한계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2. 87년 세대, 그 이후

노동운동은 현재 주객관적 정세(정치정세, 노동시장, 운동지형) 변화와 함께 87년 세대의 은퇴로 상징되는 ‘생물학적’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형성된 주체로써 최근까지 리더로 활동했던 노동운동의 1세대들은 90년대 초반까지의 민주노조 건설 투쟁, 반독재 민주화 투쟁, 전노협 운동을 통해 민주노조, 평등세상 건설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유일하게 세대적·집단적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반대로 87년 세대 이후의 노동운동 주체들은 대체로 민주노조에 대한 세대적 동기와 집단적 이념이 약하다. 가령 87년 세대들이 ‘노동해방’이라는 급진적이고 보편적인 이념을 통해 스스로를 전노협으로 호명하고 대중운동과의 결합을 경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이후의 세대는 민주노총 선언문에 제시된 (‘노동해방’보다 후퇴한) ‘사회개혁’이라는 이념을 접해보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대중운동의 침체 속에 그 이념이 대중운동과 결합해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7년 세대 이후’의 상황은 현재까지도 노동운동 리더였던 세대는 물리적으로 은퇴를 맞고 있는데(40-50대), 주로 사업장 내부 간부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후배세대의 부재로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세대(30-40대)들의 새로운 리더십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제위기 속에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청년 세대(20-30대)는 노동조합 전체적으로 조직화 담보 상태에 있는 노동운동 주체적 측면과 또한 이 변화된 세대적 조건에 맞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 전략적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3. 인천지역 노동운동의 역사와 현황

인천지역 운동은 대략 1970년대 빈민·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한 지역운동의 형성, 1980년대 노동운동의 형성-부흥기²⁾, 1990년대 사회변혁운동의 쇠퇴와 시민운동의 확장기를 거쳐 2000년대 이후 현재의 상태를 큰 변화 없이 유지해오고 있다. 인천지역 운동은 1980년대 이후 정당운동, 정치세력화 문제가 늘 화두였고, 각 시대별로 주류적인 운동(1980년대 노동운동, 1990년대 시민운동 등)의 등장/확대에 늘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었다. 과거의 영광에 갇히지 않고 지역노동운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인천지역운동의 역사적 유산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2000년대 산별노조가 정착화된 후의 몇 가지 쟁점을 평가한다.

▲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운동의 구심으로써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과 한계를 넘어서는 고유한 역할과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간 지역본부 집행부 성향에 따라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했던 편향된 노선을 넘어서고, 투쟁사업장 지원 강화, 시기별 독자 지역집회로 한정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2) 1987년 노동자대투쟁 기간 동안 인천지역에서 10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220여건의 파업이 일어났고, 6월 이전까지 100여개 수준이던 노동조합은 8월이 되면 200여개로 증가한다. 이러한 흐름은 1988년 6월, 27개 노조 5천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의 건설로 수렴되는데, 창립 이후 1년 후에는 가입노조가 80여개로 급증.

| 이슈/입장 |

▲ [지역 내 주요 산별노조] 금속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선두그룹이지만, 조합원의 고령화, 조직확대의 어려움, 최근의 복수노조 압박 등의 조건 속에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직 규모와 조직확대 추이에 걸맞게 간부·활동가 층을 확장하고 지역운동 리더로서의 역할을 키워가야 한다. 전교조는 규모, 역사, 전통을 감안한다면 최근 몇 년 사이 정권의 공안몰이 등을 거치며 위축된 활동을 법외노조 투쟁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

▲ [대공장] 한국지엠지부 등의 보수화·실리주의화 문제도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노조운영과 지역운동 내 규모로 봤을 때 대공장 노조들이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러나 지금 대공장들의 역할은 선거 시기에 부각되는 정도이다. 최근 한국지엠지부를 보면 집행부 성향이 보수화된 조합원들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임단협 시기 협상력과 운영의 투명성, 청렴성 정도가 차이를 제외하면, ‘물량이전 및 자본철수’의 상시적인 위협이라는 객관적 조건을 극복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미비사업] 인천지역에서는 불과 2~3년으로 역사가 매우 짧다. 특히 앞서 언급한 지난 10년간의 조직화 성과를 남긴 직종, 부문 역시 지역에서 그 성과는 미진하다.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 비정규직 사업은 대체로 ‘상담’, ‘선전전’ 수준에 머물러 왔고, 최근에서야 비정규직 조직활동가가 생겨나고 실험적 수준이나마 의미 있는 조직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다. (금속의 ‘권리찾기 사업단’, 공공운수의 지자체 비정규직 조직사업과 시설관리공단을 묶어세우려는 고민, 플랜트 조직화 등)

4. 인천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노동운동에 헌신하는 간부들이 있지만 조합원들의 과도한 대리주의, 과중한 업무와 육체적 정신적 소진 등 현실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지쳐가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동운동 혁신에 대한 토론을 자기문제로 고민하고 사업장에서 실천하기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또한 집단적 경험과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87년 세대가 최전선에서 물러나는 몇 년 후에는 세대 간 단절이 일어나면서 리더십에 큰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민주노총 출범 이후 노동운동 전략의 실패, 급격한 물리적 세대교체라는 조건 속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망과 대안을 위한 집단적인 고민, 토론과 노동운동 혁신의 물적 토대를 형성해나가야 할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다.

5. 출발점으로써 몇 가지 제안

- ▲ 인천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의 구성. 지난 10년 간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통해 향후 전망에 대해 집단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노조,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 ▲ 새로운 지역 노동운동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계획수립. 30-40대 간부들의 고민 집단화 경로와 구조 확보, 40-50대 선배활동가들의 경험과 역량 전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역본부와 각 산별노조들이 공식 사업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 지역적 조건에 적합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의 전면화. 인천지역의 산업분포, 파급력과 지난 10년 미조직사업 평가, 취약한 자원(활동가)을

| 이슈/입장 |

고려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와 산하 노조 전반이 미조직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참여하며 체계적으로 성과를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제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역본부의 역량과 리더십 강화다. 예산과 인력 확충에 있어서 지역본부 자기계획을 갖고 기존 사업구조의 혁신, 조합원과 사업장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그에 기초한 세심한 사업의 기획, 대중적인 언어를 기반으로 한 이념과 정책의 가공, 이를 교육 프로그램화하기 위한 역량의 투자 등이 필요하다.

진보는 무엇을 성찰해야 하나?

— 소위 ‘내란음모’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 사회진보연대

정권과 우파의 ‘중복’ 딱지 붙이기 마녀사냥이 연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보=통합진보당=중복이라는 부당전제를 깔고 있는 이데올로기 공세의 노림수는 분명해 보인다. 중복과 폭력의 이미지로 얼룩진 통합진보당이라는 ‘약한 고리’를 타격하여 진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허물어뜨리려는 것이다. 일종의 광기라 칭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나마 ‘애정 어린’ 비판을 찾는다면 진보가 ‘낡은 소영웅주의적 정신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향한 청산주의자들의 고해성사 정도일 것이다.



진보의 위기 대응 태도

공안당국의 물리적 탄압에 뒤이은 이러한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진보는 궁지에 처한 듯하다. 한편에 ‘자신은 위기와 무관하다’는 정의당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위기의 원인은 외부의 탄압에 있다’는 통합진보당의 자기변호론적 태도가 있을 텐데, 둘 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전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야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 후자는 통합진보당의 위기가 진보라는 표상 자체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민주당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논리를 동원하여 ‘진보정당’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정의당은 논외로 하자. 통합진보당의 태도는 내란 음모 ‘조작’을 둘러싼 장기간의 공방을 통해 일부 법률적 승리와 내부 결속의 강화라는 성과로 귀결될지는 몰라도, 진보의 정치적 승리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중운동이 정권의 공안탄압과 우파의 여론공세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추락한 진보의 표상을 새롭게 재구성하지 못한다면 대중의 신뢰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때 ‘나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손쉬운 방법이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통합진보당이 기층 대중운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관건은 이들과의 분리가 아니라 민중운동의 많은 부분을 점한 민족해방 이념과 노선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평화주의적 행동수단이었나

이를 위해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복합적 요인들을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반기부터 연달아 발생하는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정권의 공안탄압을 동아시아·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정세 속에서 보수세력의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여기서 나타나는 이석기 의원 등의 정세인식이나 전략전술의 문제점을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곤란과 대남전략의 변화 추이에 조응하는 민족해방 이념·노선의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안당국이 공개한 5월 회합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 등은 북미간의 참여한 군사적 대치 구도를 ‘불의의 전쟁’과 ‘정의의 전쟁’이라는 구도로 파악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미 대결 구도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평화협정 체결의 지렛대라는 이들의 정세인식은 역관계에 대한 오판일 뿐더러 핵전쟁의 특성에 대해 맹목적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하다. 또 이들은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을 은밀히 수행하는 것을 ‘유사시’ 행동지침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회운동이 채택하는 반전평화의 보편적 행동수단이 될 수 없다.

이는 세간에서 흔히 조롱하듯이 ‘시대착오적’이라거나 또는 단지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다. 평화운동의 역사 또는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전쟁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으로 채택되었던 대중적 반전시위나 총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군사주의를 모방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이들이 ‘유사시’에 남한의 대중운동에 기초한 전술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지지·보축한다는 관념에 기초한 전술을 고려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미 제국주의의 ‘불의의 전쟁’과 북한 사회주

의의 '정의의 전쟁'이라는 구도로 분석하고 군사주의에 입각한 전술방침을 수립하는 것은 비단 몇몇 특정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민족해방 계열 전반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전략적 관념이다. 따라서 민족해방 노선의 역사적 모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민족해방 노선은 진지한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북한이 평화공존론을 채택한 이래 남한의 민족민주 운동은 '사회주의 조국'으로서 북한을 보위하는 역할로 그 지위를 설정한다. 이러한 시도는 통일혁명당, 인혁당재건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시도로 이어지고, 이는 1985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계승된다. 1980년대 북한은 1970년대 이후 평화정착 및 남북합작방식의 통일론을 재확인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자주정부 수립을 주장한다. 이에 조용하여 198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성격논쟁을 거치며 '식민지반봉건/반자본주의사회론-민주자주정부를-완전연방제론'으로서 민족해방 노선이 정립된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1990년대에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와중에 경제위기와 함께 에너지·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북한경제는 붕괴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군정치가 출현하고, 극단화된 스탈린주의로서 수령론을 핵심으로 하는 김일성주의는 부자세습이라는 형태로 재생산된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전략은 ▲북미수교를 통한 안전보장의 획득 ▲북일수교를 통한 경제적 지원의 획득 ▲남북관계의 안정화(2국가 2체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나 한미일 삼각동맹의 압박 속에 본격적인 핵무장을 추진한다.

1990년대 이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 사회주의의 고립, 그리고 통일운동의 분열 등 주객관적 정세의 변화 속에서 민족해방 진영은 전략의 동요를 겪으며 조직적으로도 이완된다. 그러던 중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체결되자 민족해방 진영은 이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하고 민족민주전선 재편을 주장한다. 남한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이면에 다르지 않은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북한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핵무장’이 추진되는 정세 속에서, 민족해방 진영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한의 점진적 개혁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민족민주전선론을 다시 정식화한 것이다. 과거 민족해방 진영의 전략이 민족민주전선체에 기초한 민자정-연방제라는 단계론적 변혁·통일론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 민족민주정당에 기초해서 민자정-(낮은 단계의)연방제로 이행한다는 이들의 조직노선 변화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진로였다. 이후 민족해방 진영은 민주노동당 조직적 입당, 자주민주통일 전국현장조직 건설, 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 건설로 민족민주전선 재편을 현실화한다.

한반도의 위기, 민중운동의 위기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위기와 대화가 반복되는 교착 국면에서 북한은 협상의 지렛대로서 핵·미사일 역량을 점차 제고한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응하여 미국은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 외교적 고립을 통해 대북 봉쇄를 강화하였고, 이는 현재 오바마 정부의 ‘은근한 무시’와 ‘전략적 인내’ 정책기조에 반영되고 있다. 금융위기·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선회’에 따라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도 점점 호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하위 파트너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상반기 한반도에서는 한미동맹 대 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펼쳐졌다. 전략폭격기 B-52, 스텔스 폭격기 B-2, 핵잠수함 사이엔을 동원한 한미동맹의 대북 핵위협 속에서 북한도 ‘정전협정 백지화,’ ‘핵 선제 타격권 행사,’ ‘남북불가침합의 무효,’ ‘남북 관계 전시상황 돌입’ 등으로 맞섰다.

이런 ‘비상한’ 정세에서, 남한의 민족해방 진영은 북한의 핵무장을 대미 협상수단 또는 자위수단으로서 인정하거나 평화협정 체결의 결정적인 지렛대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인류의 절멸을 예고하는 핵전쟁에서 ‘불의의 전쟁’과 ‘정의의 전쟁’의 구별은 애당초 무의미하다. 대신 평화라는 이상에 따라 사회운동은 ‘일방적 군비 축소’와 ‘군사동맹 폐기’와 같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채택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핵무장이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곤란을 반증한다면, 그에 조용하는 남한 민족해방 진영의 핵무장 옹호는 역설적이게도 남한 사회변혁 전망의 빈곤을 반증한다.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장악한 민족해방 진영은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뒤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을 결성했다. 야권연대나 연립정부 참여를 통해 민주자주정부를 수립한다는 민족민주전선론에 따른 결과였다. 정당운동뿐만 아니라 대중조직과 연대체 수준에서 공히 민족민주전선을 강화한다는 이러한 민족해방 진영의 ‘10년의 전망’은 민주노동당의 분열 외에도 민주노총의 정파적 갈등, 전국민중연대의 해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민족해방 진영의 주류로 부상한 ‘경기동부연합’ 또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모습은 민족해방 노선의 모습이 극적으로 표출된 한 사례일 뿐이다.

사태에 대한 반성

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비단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가 아니라 진보의 표상, 그러니까 민중운동의 이념과 노선에 대한 대중적 불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다. 따라서 공안탄압에 맞선 공동 행동뿐만 아니라 이념과 노선을 성찰하고 혁신하기 위한 공동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족주의가 아니라 평화주의로서 국제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는 것, 모종의 전략적 관념을 전제한 민족민주전선론을 정정하고 남한 사회변혁의 새로운 전망을 사고하는 것, 민중운동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한 조직노선을 반성하고 단결과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위기를 부정하는 것은 위기를 지연하는 것일 뿐,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뼈아픈 일이지만 오류를 인정하고 모순을 작동시킬 때 비로소 위기는 해결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짜퉁’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 사회진보연대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 공약이 파기된 것이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사과했지만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번 기초연금 계획으로 손해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불만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 계획의 주무를 맡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이견을 보이면서 장관직을 사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과 달리 이번 기초연금 계획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명백한 복지 후퇴 계획이다.

“나는 얼마를 받게 되는 거지?”

이번에 발표된 기초연금 도입계획의 핵심은 간단하다. 우선 지급 대상은 ‘모든 65세 이상에게’ 라는 공약과 달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

인들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급여 역시 '모든 대상자에게 20만원' 이라는 공약에서 후퇴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는다.

기초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약속된 20만 원에서 차감되며, 201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재 받고 있는 10만 원만 받아 인상 효과가 전혀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함으로써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면 더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다.



복지부 장관도 설득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연계방식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사퇴를 했다. 도저히 이 계획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손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을 했어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지급한 금액인 1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해

명은 거짓말이다. 현재 50세 이하 세대들은 손해를 본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될 당시, 국민연금의 급여를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현행 A값(대략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5%(약 10만 원)에서 A값의 10%(약 20만 원)로 인상하기로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으로 정해져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인상 시기를 자신의 임기 내인 2017년 내로 단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공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현행 계획보다 더 계약된 기초연금 계획을 제출했다. 2028년에 65세가 되는 50세 이하 세대들은 원래 누구나 현재 가치로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 기초연금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이렇게 복지를 삭감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계획은 인수위 때부터 시작되었다. 게다가 인수위 당시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출처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금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개인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기초연금마저 삭감당한다면 노후에 제대로 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만 명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탈퇴했다. '6개월 만에 말 바꾸는데 30년 뒤를 어떻게 믿느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간보험 배불리고, 빈곤책임 개인 전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5.1%다. OECD 평균인 13.5%의 3배가 넘고, 2번째로 높은 아일랜드(30.6%)보다도 월등히 높다. 노인들의 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연금이나 공공부조를 통한 급여)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로 OECD 평균 60%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공적 이전소득이 많아질수록 소득불평등도 완화된다.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고, 기초연금마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개악될 위기에 처해있다. 게다가 빈곤을 방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기초생활보장법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낮은 현금 급여 수준으로 인해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연금 정책을 기초했다고 평가받는, 올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이었던 김용하 교수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연금 정책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부실해지면 개별 노동자들은 자산을 모으고, 사적 연금에 가입하는 등 투자자로서 적절히 행동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실제로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연금은 공적 연금에 비해 가입자가 되돌려 받는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금융자본만 배불리는 셈이다.

안전한 노후의 권리가 필요하다

공안탄압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자신의 핵심 공약을 폐기한 박근혜 대통령은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라는 ‘측근의 배신’에 많이 당황한 기색이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공약을 믿고 투표를 한 노인들의 분노이고, 불안한 노후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이다.

우선 정부는 기초연금 계획을 토대로 만들어 질 기초연금 개악법을 폐기하고 최소한 대통령 자신이 공약했던 수준이라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빈곤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통한 보장을 권하는 방식으로 민중을 분할하고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 미래세대에게 불리한 제도 설계로 세대 간 갈등을 만들고 있다. 현재 노인세대와 미래의 노인세대가 될 청장년 노동자 모두에게 노후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물푸레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

인터뷰/정리 | 한재영 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가 만난 사람 세 번째는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님 이십니다. 해직자 9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밀어내겠다는 정부의 시행명령에 맞서 총투표를 진행하던 마지막 날 박춘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10년 간의 해직교사 생활, 14년 만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상황, 전망 그리고 꿈에서도 그리는 교단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이고 해교자로 전임을 하고 있는 박춘배 입니다. 2004년 해고 이전에는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인천외고 영어교사로 12년 동안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시작한 시점(1993년)과 전교조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시점(1999년)이 다르신데요. 전교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 사회진보연대가 만난 사람 |

있으셨나요?

제가 첫 부임한 사학재단인 신성학원은 1989년 전교조 설립 당시 인천외고 12명, 명신여고 8명을 대량 해고한 반조합적 정서가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분위기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사운영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졌고 자연스럽게 교사 축구동아리 '늘 푸른 나무처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운동 후 뒷풀이 자리에서 저마다의 학급운영 이야기, 말씀피는 녀석들 이야기, 학교 이야기 등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들도 저와 같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길 소망하고 아이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교사 스스로 뭔가 해야 한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문제제기는 탄압만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모일 조직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자연스럽게 전교조가 합법화된 거죠. 가슴 조리며 고민 끝에 전교조 이야기를 꺼냈는데 의외로 후배가 먼저 “당연히 해야죠” 라고 화답했고, 곧이어 인천외고 분회 창립 결의가 모아졌습니다. 전체 교사 1/3 정도인 15명의 선생님들과 비밀리에 분회 창립을 추진했습니다. 창립 직전 교장에게 분회창립을 통보하고 창립식 장소와 축하사를 요청했는데 펄펄 뛰며 반대했지요. 결국 분회 창립식을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 교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상기된 얼굴과 결의에 찬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천외고 사태의 계기와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 여름방학 직후 교육부에서 노조담당 전문가로 인정받던 이00 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 유일의 특목고로써 자리 잡기와 세가 커진 전교조 죽이기 두 가지 목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임 직후 우열반, 유급제도, 사관학교를 모방한 별점제도 등을 시행했습니다. 성적에 따른 학교 시설물 사용 차별, 유급대상 학생 선처를 빌미로 한 모욕적인 학부모 각서 강요, 소변 채집을 통한 흡연 검사 등 반인권적 작태들이 버젓이 이뤄졌습니다.



교권침해도 심각했습니다. 한 선생님을 명퇴시키려고 비밀리에 각 반 반장·부반장을 모아 수업 평가서를 받아서 퇴직으로 몰고 가는 사태, 반대 발언을 막기 위해 직원회의를 녹화하고, 교감에게 미리 발언권을 신청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민주적, 반인권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적 학사운영’이 적힌 패찰을 매고 수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선생님들에게 학교로부터 경고장이 계속 날아왔고요.

결국 학교는 눈엣가시인 전교조 활동 탄압을 위해 주모자로 여긴 두 명을 찍어 2004년 4월 24일 토요일에 파면징계를 내렸습니다. 바로 월요일

| 사회진보연대가 만난 사람 |

부터 교장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함께 너무 잘 싸워줬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대체수업 선생님이 와도 수업을 거부하고 내려와서 저한테 수업을 받고, 아이들은 과면철회 등 자신들의 요구를 쓴 선전물을 학교 전 건물에 도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공대위를 만들고, 교사 공대위, 지역 공대위도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이슈가 되던 때여서 국회의원과 여론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21년차 교사 생활 중 가장 인상적인 기억과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무엇인가요?

인상적인 기억은 처음 교단에 섰을 때예요. 애송이 총각선생님을 바라보는 호기심어린 눈빛이 너무나 기억납니다. 칠판에 이름을 쓸 때 ‘춘’ 쓰면 아이들이 ‘아~~’하고, ‘배’ 쓰면 넘어가고 난리가 났었어요(웃음). 부임 두 번째 해, 첫 담임을 맡은 학생들과의 추억이 그림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하던 날, 아이들이 이삿짐을 함께 나르고 도배하던 기억, 퇴근 후, 자취방에 와 보니, 제자 녀석들이 열쇠 든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없는데도 먹을 것을 사들고 와 먼저 자취방에 자리 잡고 천연덕스럽게 저를 맞이하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입니다.

해고당하고 투쟁한 기억이 행복하지만 가슴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2009년 인천여상에 학교 현장 복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간제 교사로 1년 근무했었는데 그 시간들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기도 했고, 혹시 이 아이들이 마지막 제자는 아닐까하는 우려가 들기도 했어요.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공세에 총력투쟁 중인 전교조 조합원들의 학교 현장과 전교조 인천지부 활동가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활동가들의 전반적인 정서는 반대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으로 가면 법외노조를 ‘불법’으로 느끼면서 본인들이 뭔가 ‘잘못’을 한다고 생각해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정서들이 있습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기존 혁신학교 같은 활동들에 제약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에 워낙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박근혜 정부와 전교조의 싸움은 장기전이 예상됩니다. 향후 대정부 투쟁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이미 법외노조 칼을 든 이상 아마 끝까지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교조가 평정심을 갖고 대오를 잘 유지해 탈퇴자를 줄이는 것이고 그러면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쟁전술로 논쟁이 붙는 것은 괜찮지만 노조가 갈라지면 결코 안 됩니다. 전교조는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넣을텐데, 받아들여지면 3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법외노조를 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박춘배 국장님께서서는 교육부가 조합원 자격 배제 대상으로 지목한 9인 중 한 분이신데요. 개인적인 심경은 어떠신가요?

| 사회진보연대가 만난 사람 |

저는 그냥 담담합니다. 이 문제를 가능한 해고자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일반 조합원 입장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비합법 시절에도 1500명 해고자를 내면서까지 합법화까지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는데 그 때 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해고자로써의 심경보다는 조합원으로써의 심경이 더 많습니다.

이번 전교조 투쟁은 인천지역에서 연대가 굉장히 잘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989년 교사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노조 깃발을 든 선생님들의 참교육 실천 의지에 시민들의 기대가 큰 거 같습니다. 내가 학생이었고, 학부모였던 시절 교사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보다 가깝게 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고충도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박홍순 지부장님이 지역에서 넓은 연대활동을 벌이신 것도 많은 단위들이 전교조 활동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된 중요한 계기이고요.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교조 운동의 위상은 ‘교육운동’의 전문성이 ‘노동운동’과 혼재되어 다른 산별/연맹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전교조 인천지부의 향후 과제와 지역에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전교조는 오랜 기간 동안 교육 전문성을 살려 ‘참교육 실천대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외노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애, 인권, 노동의 가치를 전파하고 교육에 대한 고민을 키워가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학부모 사업을 통해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역할을 만들어가

고,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춘배 선생님께서 바라는 교육현장의 모습과 꿈에서도 만나고 싶은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이 자주 만나고, 서로 소통하는 교육현장이어야 합니다. 요즘은 교사들이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관리자와 교육제도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과의 소통과 교감으로 행복해 합니다. 아이들도 가고 싶고 선생님들도 자부심 느끼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제 간 자주 만나고 대화를 자주 나눌 수 있는 학교로 변해야 합니다.

예전에 '물푸레나무'가 되고 싶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 물에 넣으면 물이 푸르게 변하는 나무예요. 작지만 가지가 많아서 관목처럼 크게 보이고, 굉장히 단단하죠. 교단에 복직하면 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더욱 푸르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물푸레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내년에 해직만 10년이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줄어들기 전에 빨리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직도 제 꿈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가 비록 삼성일지라도,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수석부지회장

인터뷰/정리 | 유다해 조직국장

사회진보연대가 만난 네 번째 사람. 기분 좋은 10월의 가을 날, 노조 설립 이후 삼성에 맞서 이기기 위해 몇 달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오고 있는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쁘네요 ^^ 7월 노조 결성부터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침부터 새벽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통화를 해야 했을 정도예요. 지금은 오전에는 노조업무를 보고, 오후에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는 삼성에서는 사상 최초로 대중적으로 결성된 노동조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원체 노동조건이 열악했고, 분노가 많았어요. 성수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서 주말도 없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비수기에는 일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더 일하려고 늦게까지 일해야 되죠. 그렇게 일하고 기름값, 차량유지비, 통화비, 밥값 빼면 최저임금도 안 되기 부지기수예요. 그러다가 빚만 지고 떠나간 후배들도 참 많았어요. 또 해피콜이라고 고객에게 받는 점수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하고, 점수 때문에 내 돈으로 수리비를 메꾸기도 하죠. 또 원래 근로조건이 열악했지만, 그마저 2-3년 사이에 정말 많이 악화됐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1/3정도의 임금이 하락했으니 말 다했지요.

처음 동래센터에서 폐업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려운 고객을 전담하는 전담자, 노사협의회 대표 등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결속될 수 있었어요.

노동조합을 시작하기 전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저는 92년도에 대우전자서비스에 입사해서 2000년에 삼성전자서비스로 옮겼는데, 평생 이 일만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입사하고 새벽 3-4시까지 TV 회로 뜯어서 외우고 그러다보니 어느새 실적 1등을 하게 됐구요.

기억에 남는 진상 고객이 있다면

석남동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하시던 분이예요. (꺄꺄) 그 분만 11번을

| 사회진보연대가 만난 사람 |

찾아갔습니다. 매일 출근을 그 분 집으로 한 셈이죠. 김치냉장고를 교환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그렇게 찾아가면서도 웃는 낯 안 변하니 그 분도 결국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죠.

노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지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하면서 센터 사장과 엄청나게 싸웠어요. 2012년 4월에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어도 그 내역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전에는 엔지니어와 사장 몫이 분리되어 삼성전자에서 내려왔다면, 하나로 묶어서 오기 시작한 것. 이걸 우리는 '녹아있다'라고 하죠. 동료들과 함께 급여 실태 달라고 3개월을 싸우고, 받은 걸로 강보섭 동지가 한 달 동안 역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못 받은 돈 3개월치를 돌려받았습니다. 사장이 '너 혼자 좋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우기는 바람에 제 몫만 제외하고 모두 받았지요.

노동조합을 하고 나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이 있다면

아무래도 총회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삼성과 맞서 싸우자고 결의를 다지는데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하겠다고 돌아다니던 일이 참 재밌었어요. 발로 뛰면서 센터에 찾아가서 노동조합 가입하자고 설득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가입하고... 처음 찾아가던 센터가 김포였죠.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어요.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처음 노조를 만들고 사기가 한껏 오르다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고, 본격적인 노조탄압이 시작되면서 제 2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까 고민이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표적감사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조직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탄압에 탈퇴하는 조합원이 생기긴 했지만 훨씬 많은 조합원들이 굳세게 버티고 있어요. 우리 조합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승리죠.^^ 단시간에 끝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년, 5년은 바라보고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진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전태일 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
故 최종범 님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뷰를 하고 난 후 지난 10월 31일, 노조탄압으로 천안의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장의 욕설을 온 몸으로 받아낸 노동자였습니다. 아까운 목숨 죽음으로 몰아간 삼성 자본 투쟁 승리로 반드시 단죄합시다!

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경과와 현황

한재영 |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누구나 인정하듯 제조업은 한국경제를 세계 10위권까지 오게 한 일등 공신입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공장들이 밀집해있는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62.0%, 수출액의 72%, 고용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중추 중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도시로 불리는 인천 역시 남동, 부평, 주안 등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까지 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의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통계를 통해 인천경제 내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 및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력의 그늘 아래 형성된 인천지역 산업단지

인천의 산업단지는 2개의 국가산업단지와 7개의 일반산업단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65년에 조성되기 시작한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부평, 주안)와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서 개발유도권역으로 지정되어 1985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남동 국가산업단지 두 곳입니다. 지면의 한계 상 입주업체 수, 고용, 생산액, 수출 등에서 인천지역 산업단지 70%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산업단지의

조성경과만 살펴보겠습니다.

부평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최초 대규모 공업단지였던만큼 한국현대사와 동고동락하며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구와 밀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발전한 부평은 1940년대 일제의 패망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더욱 망가진 부평은 20년의 긴 침체기에 빠집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7)』 하에 수출산업공단으로 선정되면서 다시 경제성장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당시 수출산업공단 선정을 두고 생활권역, 행정권역 상 분리되어 있던 인천과의 경쟁 끝에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 '인천수출산업공단(일명 부평공단)'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공단조성이 시작된 1965년 당시 미국의 원조와 미군부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의존적이었던 부평지역은 공단을 중심으로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당시 산업별 인구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52.2%로 압도적이었고, 농업 20.6%, 상업 16.4%, 제조업 3.8%, 건설업 1.6% 순으로 제조업 노동자층이 매우 얇았습니다. 그나마 발전된 부평이 이정도니 다른 지역의 제조업은 더욱 취약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안국가산업단지(일명 주안서구공단)은 부평공단의 성장을 배경으로 1969년 소금과잉생산으로 폐쇄된 주안염전을 매워 서구 가좌동, 남구 주안동, 부평구 십정동 일원에 조성됩니다. 선진국 외자기업과 국내-외국합작기업 유치를 우선 목표로 삼았던 '70년대 판 경제자유구역'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안공단의 성장은 남구의 성장 촉진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963년 인천대비 남구 인구분포가 28.4%였던 반면 1985년에는 44.6%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남구인구 급증은 주안공단 노동력 수요확대에 따른 결과였으며 주택, 시장, 학교, 공공시설의 투자 증가와 함께 인천시 팽창의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한국수출산업단지(부평·주안)

은 전자전기, 운송장비, 석유화학 업종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일명 남동공단)의 조성계획은 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1985년-1997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발이 이뤄지고, 염전과 공유수면을 매립해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일원에 조성됩니다. 최초 조성 당시 중앙정부의 목적은 수도권에 산재한 무허가 공장 정비 및 공해유발 중소영세기업 집적화를 통한 환경관리였던 반면, 지자체의 목적은 노후화된 부평주안 공단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유치였습니다. 이러한 동상이몽은 이후 남동공단에 일어난 환경문제, 공단의 영세화 문제 등 그간 남동공단의 난맥상을 예고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계, 전자전기, 석유화학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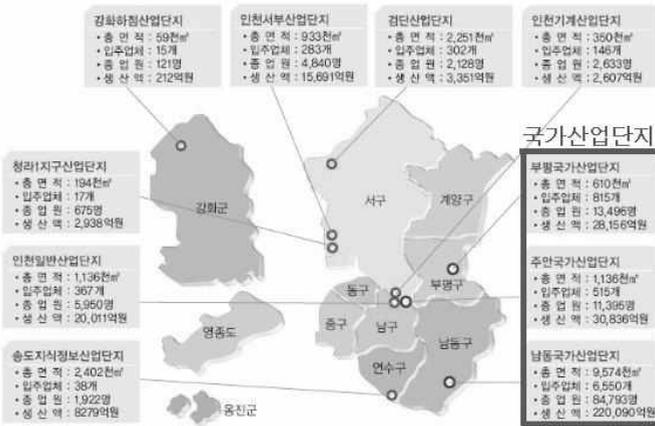
군사쿠테타와 부평 4공단, 주안서구 5,6공단의 유래

흔히들 부평공단을 4공단, 주안서구공단을 5,6공단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명칭이 붙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대정치사의 권력 재편과 강력한 정부의 민간경제부문 통제의 결과입니다. 1963년 창립된 한국수출산업공단은 구로와 가리봉 일대에 1,2,3단지를 설립합니다. 앞서 살펴본 부평공단과 주안공단은 이와는 별도 법인하였고, 비슷한 시기 주안공단 주변에 민간 주도로 조성되던 인천 비철고속공업단지는 민간 법인이었습니다. 당시 강력한 관주도 경제정책을 추진하던 정부는 정책 효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수출산업공단에 1971년 부평공단을 4단지, 주안공단을 5단지, 1974년 인천비철고속공단을 6단지로 강제 통합합니다. 이런 강제 통합은 부평공단과 주안공단의 통계 수치가 인천이 아니라

| 분석 |

서울로 잡히는 외국을 낳습니다. 결국 2008년에서야 통계가 분리되어 인천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통합 당시 인천수출산업공단(부채 5.5억원)은 한국수출산업공단(부채 15억원)에 비해 재무상태가 양호한 편이어서 논란이 컸었는데, 이러한 강제 정책의 배경에는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도 작용했습니다. 당시 '혁명주체 세력(516 군사쿠데타 세력)'과 이해관계가 깊은 최명현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과 그렇지 않던 김인식 인천수출산업공단 이사장과의 정치력 차이가 무리한 통합을 성사시킨 요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역시 1980년대 초반 광주민중항쟁으로 흥흥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인천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정치적으로 배정했다는 정황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2012), 출처: 인천상공회의소

통계로 살펴보는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현황

1) 인천지역 제조업 내 산업단지 비중

인천지역 산업단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2012년말 기준으로 9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라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강화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 중입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수(11개) 및 관리면적(20km²)은 수도권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국대비 각각 1.1% 및 1.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제조업 부문에서 산업단지는 가동사업체수, 생산액, 고용 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수 대비 산업단지 가동사업체수 비중(%)

	2001	...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¹⁾	19.6	...	23.3	32.6	36.3	37.7	39.4
전국 ¹⁾	7.0	...	13.2	15.3	16.8	18.0	18.7

주 : 1) 사업체조사의 제조업 사업체수 대비, 자료 : 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 내 산업단지 가동업체수는 표에 보이듯 2007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해 2012년 말 현재 지역 내 제조업체 대비 39.4%, 8527개로 급증했습니다.(국가산업단지 7,567개, 일반산업단지 960개). 그 이유는 첫째, 앞서 언급한대로 2008년 이후 한국수출단지(서울)에 포함되어 있던 부평, 주안 산업단지(1,030개)가 인천으로 편입된 것.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지역경기침체로 공단 내 휴·폐업한 업체부지에 영세한 업체가 다수 입주한 것에 기인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입주하는 영세업체는 대부분 공장을 빌려서 쓰는 임차업체입니다.

제조업 생산액 대비 산업단지 생산액 비중(%)

	2001	...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¹⁾	29.7	...	29.3	42.3	47.9	48.3	52.5
전국 ¹⁾	53.5	...	59.7	59.2	62.3	62.0	65.6

주 : 1) 광공업조사 제조업 생산액 대비 자료 : 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년은 통계상 지역분류 차이를 감안하여 제외

지역 내 산업단지 생산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01년 이후 산업단지의 생산 증가율은 평균 8.7%*로 전국 평균 12.3%를 다소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내 제조업 생산액 대비 산업단지 생산액 비중을 보면 2011년말 현재 52.5%를 기록하면서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 대비 산업단지 고용 비중(%)

	2001	...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 ¹⁾	28.9	...	35.7	50.1	52.7	52.9	54.6
전국 ¹⁾	29.0	...	40.0	42.8	45.1	46.1	47.8

주 : 1) 사업체조사의 제조업 종사자수 대비 자료 : 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년은 통계상 지역분류 차이를 감안하여 제외

지역 내 산업단지 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들어서는 5.1% 증가한 12만 7,953명을 기록했습니다.(하지만 이 통계는 간접·파견고용 등 비정규직의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는 못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2001-2012년 중 고용증가율*은 평균 3.3%로

전국 평균 6.0%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2012년 5.1%의 증가율 속에는 내국인 제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대비 산업단지 고용인원의 비중은 2011년 말에는 54.6%까지 올라 전국수준(47.8%)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2) 인천지역 산업단지 특징_노후화·영세화

1960년대 중반부터 조성된 인천지역 산업단지는 노후화, 영세화가 특징입니다. 때문에 인천지역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주력 업종인 기계(31.6%), 전기전자(27.7%), 석유화학(12.6%), 운송 장비(9.6%)업의 1인당 생산액이 모두 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고, 업체당 생산액은 39.0억원(전국평균 152.8억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단위 중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의 경우 72.5만달러(전국평균 633.5만달러)로 전국 14위, 업체당 고용은 15.0명(전국평균 27.7)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세화가 최근 급격히 일어나는 원인은 2000년 이후 공장부지를 보유하지 않고 임차료만 부담하는 영세 임차업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산업단지들(2008년→2013년의 임차업체 비율, 2013년 신규입주업체 중 임차업체 비중)을 살펴보면 부평(27.1%→36.3%, 66%), 주안 (48.9%→52.9%, 92%), 남동(56.3%→66.9%, 92.3%)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임차업체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기존업체의 휴폐업 및 이전 공장부지가 지역 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업황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임차료만 부담하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거

| 분석 |

진입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합니다. 또한 5년 새 두 배 가량 폭등한 산업단지 내 부동산 가격은 ‘대공장 이탈-영세 임차업체 밀집’에 촉매가 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일하지만 통계에서 지워지는 노동자들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조성 경과 및 현황을 간략히 통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통계/자료들은 상대적으로 세세하게 조사해 정리/발표한 반면, 임금, 노동시간, 간접고용 실태 등 그곳에서 일 해 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정리/발표한 통계는 찾아볼 길이 요원하다는 점입니다. 겨우 발견한 지표라고는 2006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저임금’을 홍보하기 위해 발표한 자료가 고작이었습니다. 남동공단 127만원, 반월공단 평균 월급 131만원, 시화공단 119만원이었지요. 이마저도 공개발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계 조사의 공백, 편향들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서 노동자라는 이름을 지우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통계는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역사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통계와 기록의 공백을 메우고,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천들이 공단조직화 사업으로 서울구로디지털단지, 녹산공단, 반월시화공단 등 전국 산업단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는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이 부평공단에서 무허가·불법과건, 임금, 건강 등 각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과 신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공단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은 자본과 권력의 성과로 둔갑해버렸습니

다. 장기침체 속에 더욱 거센 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공단 노동자들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인화의 그림이야기

고흐, 끈이 달린 구두, 1886, [고흐박물관 소장]

이인화 회원

이 그림에 대한 어느 독일인의 설명

「이 구두라는 도구의 밖으로 드러난 내부의 어두운 틈으로부터 들일을 하러 나선이의 고통을 응시하고 있으며, 이 구두라는 도구의 실박한 무게 가운데는 거친 바람이 부는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걷는 강인함이 쌓여있고, 구두가죽 위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로움이 깃들어 있다. 구두창 아래는 해 저물 녘 들길의 고독이 깃들어 있고, 이 구두라는 도구 가운데서 대지의 소리 없는 부름이, 또 대지의 조용한 선물인 다 익은 곡식의 부름이, 겨울 들판의 황량한 휴한지 가운데서 일렁이는 해명할 수 없는 대지의 거절이 동요하고 있다. 이 구두라는 도구에는 빵의 확보를 위한 불명 없는 근심과 다시 고난을 극복한 뒤의 말없는 기쁨과 아기의 출산에 임박한 초조함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의 전율이 스며들어 있다.」

작년 말인지 올 초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어느 순간 대중에 대한 물음이 다가왔다. 역사의 발전법칙에 따라 '대중은 옳은 방향을 추구하며 현명

한 존재이기에 무한신뢰의 대상이다' 라고 머릿속으로는 규정했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나를 포함한 대중은 나약하고, 비겁하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물음표를 몇 개 넣고 다닐 즈음 지인에게 대중에 대해서 묻게 되었는데 답이 '그림을 봐라' 이었다. 뜬금없이 그림이라니…….



▲반 고흐 작 '끈이 달린 구두'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 미술 시간은 고약의 시간이었고 당연히 두 과목의 점수는 60점을 넘어본 기억이 없는데……. 막연해서 무슨 그림을 봐야 하나며 되물어 보니 네덜란드화가 브루겔과 프랑스화가 쿠르베의 작품을 보란다.

인터넷으로 그림책을 사고 몇 번을 보았는데 당최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한 달쯤 지난 후에 다시 화가가 바라보는 대중에 대한 시선에 대해 얘기

를 하는데 나는 당연히 화가의 따스한 시선-특히 브루겔의 작품-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 지인은 오히려 화가의 차가운 시선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화가의 차가운 시선은 보지를 못하고 포기하고 있다. 뭐 서양 미술의 역사나 서양 미술의 사상 같은 책을 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아직은 여기까지!

‘대중에 대한 규정은 좀 더 긴 시간의 숙제로 남겨두고 ‘대중’이라는 단어 덕분에 그림책도 생기고 그림을 관심 있게 보게 되어 여러모로 좋다. 위에 있는 고희의 ‘끈이 달린 구두’도 그 과정에서 만난 그림이다.

고흐는 화랑의 점원, 초등학교 교사, 서점의 점원, 전도사를 거쳐 화가로 정착하였다. 이 그림은 파리에 있던 1886년에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고희는 어느 날 몽마르뜨 언덕에서 이 구두를 사고 자신이 신으려 했지만 맞지 않아 그림의 소재인 정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림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양하겠고 느끼는 대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인 나는 고단함, 가난, 수고 같은 느낌들이 들었다. 그리고 고희의 구두에 대한 시선은 ‘아린 따스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고희는 10점의 구두 그림을 남겼는데 다른 구두 그림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강해진다.

시간이 날 때, 여유가 조금 있을 때마다 그림과 책을 보려고 생각중이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시선들을 만나고 싶고 미루어둔 ‘대중에 대한 화가의 작가의 차가운 시선과 따스한 시선’을 발견하고 싶다.

공단에서 미숙련 노동자로 살아가기

공단 노동자 | 박미경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파견업체에서 붙인 일자리를 구한다는 전단지
를 쉽게 볼 수 있다. 전단지에 적혀있는 대로라면 기술이 없어도 한 두
달 빠르게 일하면 삼사백은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특별
히 기술이 필요 없고 사람이 항상 많이 필요한 전자제품 제조회사에는 잠
깐 일을 쉬는 사람들, 알바가 필요한 사람들, 학생들, 주부들이 참 많다.
나도 그렇게 공단의 전자제품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두발규제하고, 핸드폰 걷는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놀란 건 회사가 꼭 고등학교 같다는 것이었다. 우리
회사에서는 밝은 염색을 할 수가 없다. 머리가 긴 경우에는 반드시 머리
를 묶어야 하고,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를 입을 수도 없다. 이유는?
없다. 그냥 회사 규정이 그렇단다. 일에 방해되기 때문이라면 이해가 되
겠지만 그런 이유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이 규칙은 잘 지켜진다. 현장에서
는 핸드폰 소지도 통제된다. 이유는 회장님 사모님이 회사를 둘러보다가
근무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원을 봤다고 한 일 때문이다. 그 이후

로 공정마다 출입구에 핸드폰 보관함이 생겼고, 들어갈 때 내고 들어가야 한다. 흡연 구역도 엄격하게 정해져있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회사 정문 근처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 회장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관리자에게 적발(!)되면 바로 퇴사처리 된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방불케 하는 회사, 요새는 학교에서도 '인권'을 이야기하며 사생활에 대한 통제가 덜해지고 있는데 노동자에게는 그런 말이 사치처럼 여겨진다.

일이 없을 때 : 쉬는 게 벌이 되는 공장

“오늘은 누구 누구 남고 집에 가세요.”

가차 없이 실적에 따라서 선택되는 잔업. 잔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장에 게 잘 보여야 한다. 다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기에 물량이 없을 때는 조장의 말 한 마디에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징계성으로 잔업 특근 배치가 이루어진다. 좀 웃기지 않은가? 실수를 한 사람이, 줄다가 걸린 사람이 “너 일주일간 잔업 없어!”란 말을 듣고 시무룩해지는 상황... ‘똑딱’ 하고 스위치를 내리듯이 조장의 지시에 따라 누구는 켜지고, 누구는 꺼지고, 사람의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참 쉽다.

일이 많을 때 : 주말 없이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일이 많을 때면 우리 회사는 주말이 없다. 12시간씩 정해진 시간을 채우고 2주씩 교대가 바뀌는 주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24시간을 회사에서는 ‘휴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게 무슨 휴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자고 출근한다. 그나마 그런 자투리 시간도 없애려고 교대를 한 주 연

기하기 십상이다. 한 달에 2번 쓸 수 있는 연차와 보건휴가도 물량이 너무 많거나 인원이 부족한 달에는 눈치 보아서 쓸 수가 없다.

‘다들 이렇게 산다’는 생각이 나를 버티게 한다.

주말이 없다는 것.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다들 이렇게 산다’는 생각이 나를 버티게 한다. 이 건 ‘특별히’ 악질적인 현장이 아니다. 다만 특별히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 그렇게 일하고 산다는 생각. 내가 다니는 공장만 해도 2000여명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공단 전체에 이런 노동이 일반화 되어있다.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현장을 채워가는 중국인 아줌마들

일이 힘들다 보니 젊은 여성들은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 몇 개월 바짝 돈 벌어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남는 사람들은 아줌마들이다. 특히 중국인 아줌마들.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조반장 같은 관리자들이 좋아한다. 4개월 동안 같은 조를 하면서 친해진 중국인 여성노동자는 그동안 딱 한번 월차를 썼다. 추가 연장이나 특공대(2주에 한번, 교대주 일요일 야간에 공장이 멈추게 되는데 물량이 많을 때는 이게 엄청난 손실이라고 하면서 12시간 추가 연장 = 철야를 시킨다. 이를 특공대라고 부른다...)나 철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중국인 아줌마들이 많아지고, 현장에서 중국말이 정말 많이 들린다.

그래도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은 있다.

집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 와서 나눠먹고, 빵이나 떡볶이, 닭발 같은 거 사와서 같이 먹고, 가끔 관리자들 몰래 야식도 시켜먹고, 야간조 끝나고 굳이 아침에 여는 식당까지 찾아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다 먹는거네? ㅎㅎ) 안 입을 옷이나 메지 않는 가방을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소소한 즐거움.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섭섭해 하기도 하는데, 또 싹싹한 신입이 들어오면 잘 해주게 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된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다가 새로운 일자리 알아보는 사이에 3개월 정도 돈 모으려고 들어왔던 언니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24살짜리 동생, 아이가 셋이 있는 동생... 다들 열심히 일해서 아이 잘 키우고, 장사 밀친 마련하고, 집 사고, 차 사고... 나름대로의 삶을 일구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 특별하지 않은 소망들인데, 주말엔 쉬고 가끔은 가족과 친구를 만나 놀러가기도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공단의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화이팅!

“2013인천노동운동포럼”

돌아보기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에 걸쳐 2013 인천노동운동포럼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1강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와 나아갈 길>에서는 단병호 前위원장님의 생생하고도 준엄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강 한국 산업구조의 변동과 노동운동의 대응>에서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구조와 이를 깰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의 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강 노동운동 세대토크>에서는 패널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참석하신 분들의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강연 중인 단병호 前위원장님

1강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와 나아갈 길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달랐던 강연

인천노동운동포럼 1강을 열어주신 단병호 前위원장님은 그 명성답게 많은 분들이 교육실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가득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강의는 87년 노동자 대투쟁부터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결성, 96-97 총파업, IMF와 노동운동의 위기,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까지



▲ 쏟아지는 질문들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지루함 없이 때로는 가슴 뭉클하게, 때로는 재미있게 또 준엄하게 오늘날의 민주노총을 꾸짖기도 하시며 좌중을 들었다 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일 끝나고 오신 분, 술 한 잔 걸치신 분 등(^^) 즐리실법한데도 조는 분 없이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스무살 대학생친구는 뒤폴이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았지만 집회 때 외치는 구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2장 한국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노동자만이 재벌을 개혁할 수 있다!

재벌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산업구조. 재벌은 경제위기가 지

속될수록 국가의 어마어마한 지원 아래 더욱더 비대해져왔고, 이제 국가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집단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해서 분석하고 살펴봤습니다. 결국 재벌의 통제는 국가권력이 아니라 절대다수로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동자만이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선 기업의 벽을 넘어선 노동자 간 연대, 계급 대표성을 확보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화가 필요함을 공유하며 힘차게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 노동운동 세대토크 사회자와 패널들

3장 노동운동 세대토크

노동운동 세대토크는 '세대문제'를 중심 키워드로 삼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당일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패널로 초청한 분들의 개인 운동사를 자료집에 실어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계기로 노동운동이란 것을 시작하게 된 사연을 담았습니다.

87년 세대,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노동운동을 시작한 세대

패널들의 구성을 보면 한국 노동운동이 한창 들끓어 오르던 시기에 노동운동을 시작한 세대와 2000년대 이후 노동운동을 시작한 세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고민도 달랐습니다.

선배 세대 패널은 예전과 달라진 운동의 조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후배 세대 패널은 스카게티와 파진 논쟁으로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운동이 안 되는 시기에 노동운동을 시작해 얼마 없는 젊은 간부로서 많은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세대문제를 통해 바라본 인천지역운동

세대문제라 함은 지역 노동운동의 '리더십'문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세대문제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인천지역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논해보자는 것입니다. 세대 문제는 곧 해당 노동조합이 현재 부딪힌, 넘어야 할 과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 각각의 세대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찾을 지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토론에서는 인천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공장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진솔한 고민부터 금속, 공공, 건설 등 주요 산별의 현재적 과제, 활동가 성장 경로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이런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실로 오랜만의 일인지라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세대토크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지역운동의 큰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

9월-10월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활동들



8월 24일
범국민대회

하지마!!
철도민영화!!



노동자는 하나!



8월 31일 거북시장 이주노동자선전전



10월
19일
전교조
교사대회

전교조
힘내세요!!



바탕규칙
투쟁 승리!!!



11월 1일
공항지역지부 파업집회



10월 31일 국정원 규탄 시국회의
촛불에서 카드섹션

내가 본 사회진보연대

함께 소풍 갑시다!!

전송철 | 금속노조 인천지부 사무국장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한재영집행위원장으로부터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요청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에 바라는 바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사실 사회진보연대가 지역에서의 활동성이 활발하고 헌신적이기에 특별히 바라는 바는 별로 없는 없는데 고민하면서 일상에서 느꼈던 내용을 써보기로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2003년경 서울에서 노조활동 할 당시에 알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회원의 다수가 젊다는 느낌이었고, 그런 저런 이유로 조금은 다가서기가 어려웠던 느낌이 있었다. 이후 특별히 활동 과정에서 인간적 관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2011년 5월 금속노조 인천지부에 미비담당자로 채용되면서 사회진보연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집행위원장과 집행국장(?) 상근을 하고

있는 모습,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업과 인천지역연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울에서 가졌던 조금의 선입견이 단순화되는 과정이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소식지를 격월로 발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역의 활동가, 노동자들과 호흡을 열심히 하고자 한다는 좋은 느낌을 주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북인천센터 촛불문화제에서 카드섹션을 보면서 내용이 기발하고 훌륭한 기획이었다는 감탄도 하였다.

올해 7~8월경 일거다. 한재영집행위원장과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운동, 노동운동에 대해 인천지역에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극복을 담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바 있었다. 그런 나의 의견에 의한 과정이었는지 모르겠으나, 3회로 마감한 인천지역 노동운동포럼은 지역 노동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일을 얘기하는 뜻 있는 자리였다. 특히 세대간 토론은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노동운동포럼이 가능하다면 사회진보연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함께 기획하고 내용을 채워 매년 진행한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올 초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회원들이 소풍 나들이 했나보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후원회원인 나는 왜 초대받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초대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는가? 후원회원을 포함한 가을 소풍을 제안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요청한 내용이 있기에 바라는 바 두 가지를 가볍게 제안해 보고자 한다.

| 내가 본 사회진보연대 |

하나, 사회진보연대에서 상근하는 활동가들의 활동비가 박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만큼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둘, 진보정치운동,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의견이 열린 공간에서 조금 더 활발한 목소리와 역할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는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합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합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이 사회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 민중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천지역의 문제를 조사, 연구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고,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웁니다.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차별당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웁니다.

이 모든 일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회원이 되어 주세요.

회원가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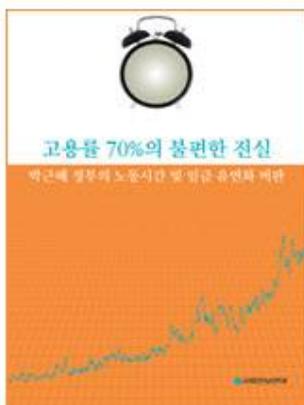
이름 _____ 후원회원 정회원
은행명 _____
은행계좌번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약정금액 _____
이메일 _____
연락처 _____
주소 _____
가입동기 _____

|내가 본 사회진보연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70% 정책, 전격 분석 비판!

고용률 70%의 불편한 진실

-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 유연화 비판을 위한 소책자 -



- ▶ 가격: 3,000원 (*우편발송 시 1000원 추가)
- ▶ 구입문의: (02)778-4001~2 / pssp@jinbo.net
- ▶ 계좌번호 : 하나은행 771-910262-85707 (예금주: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